

Q.

그림책을 보며 질문이 많아지거나
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.
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answer>>

질문이 많다는 것은 방해가 아니라,
이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



자녀의 질문은 이야기를
흐트러뜨리는 행동이 아니라,
책 속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
연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.

모든 질문에 바로
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


지금 바로 답해도 되고, “이 장면 끝나고
이야기해 보자”라고 잠시 미루어도 괜찮습니다.
이야기의 흐름과 부모-자녀의 관계,
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.

질문으로 이야기가
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.



그 길은 '이야기에서 벗어난 길'이 아니라
영유아의 생각이 확장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.
책은 정답보다 생각을 열어 주는 도구입니다.

책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
책 읽기는 실패가 아닙니다.



질문과 이야기로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더라도,
영유아에게는 이미 충분한 상호작용과
배움이 일어납니다.

질문이 많을수록
‘잘 듣고 있다’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.



가만히 듣는 것만이 집중은 아닙니다.
문고,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도
영유아만의 집중 방식입니다.

그림책 읽기의 목표는 ‘완독’이 아니라
‘함께 생각하기’입니다.



책 읽기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
영유아에게 남는 것은 책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,
질문을 받아 주었던 부모님의 태도입니다.